

11월 23일 교훈

경고받은 백성

핵심 구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내게 대신하여 경고하라."

에스겔 33:7

선별된 성경 구절:
에스겔 33:7-20

어떤 이들은 에스겔서를 참신함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선지자가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자들과의 만남을 기록했다는 주장을
담은 책들이 쓰여졌다. [이는 본지 편집위원회의
견해가 아님] 다른 이들은 "고그... 마고그"로
지칭되는 침략군과 관련된 묵시적 시나리오에 관심을
보인다. (에스겔 38:2). 그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촉발한다. 에스겔의 마지막 장들로 나아가면, 새 성전의 약속과 다가올 천년왕국의 영광에 대한 암시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주제들은 성경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만, 이 매혹적인 책에 담긴 또 다른 차원의 업계일리스트() 가르침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그 교훈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항상 경계하고 신실한 파수꾼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영적 번영을 지켜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에스겔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창세기 4:9에 제기된 오랜 질문, "내가 내 형제의 지키는 자냐?"에 "그렇다, 내가 지키는 자다"라고 확고히 답합시다.

본문의 핵심 구절은 에스겔이 주님께로부터 파수꾼이 되라는 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여도 그가 악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네 영혼을 구원하였느니라. … 그러나 네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경고받은 까닭에 반드시 살리라. 너도 네 영혼을 구원하였느니라.” 에스겔 3:18-21

우리는 남의 삶에 참견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보고 양육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있거나 사랑의 위로가 있거나 성령의 교제가 있거나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내 기쁨을 채우라. 아무 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라. 각자 자기의 이익만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찾으라.” 빌립보서 2:1-4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성경적 경계를 명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평가에서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 합니다. (마태복음 23:11; 요한복음 13:14-16). 베드로는 지혜롭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치되 강요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함으로 하지 말고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며, 맡겨진 자들을 지배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양 떼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2,3

하나님께서는 결국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돌보라는 말씀과 환상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시편 127:1